

2024
10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2024년 제1회 임상병리사 정책포럼 개최
10월 29일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02 FOCUS

방문 현장검사(POCT)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

05 KAMT News

송기선 학술부회장, IFBLS 이사 당선

제501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4년 제1회 임상병리사 정책포럼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9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임상병리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료 통합 돌봄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책포럼에는 이만우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김명철 한국보건 의료윤리학회 회장, 전기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이사, 염석재 씨젠의료재단 전무이사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16개 시도회, 11개 분과학회 집행부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며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1부 개회식과 2부 이광우 협회장 격려사 및 김명철 한국보건 의료윤리학회 회장 축사에 이어 진행된 3부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회 입법절차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의 이해',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근거 기반 보건 의료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역할', 'Aging in Place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가 차례대로 진행된 후 행사 기념촬영을 끝으로 정책포럼은 성료했다.

10월 29일 국회토론회 개최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0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서미화,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1부 개회식으로 시작해 2부에는 김기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이 발제한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보건 의료계 전문가 7인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일시 2024.10.29. (화) 14:00 ~ 16:00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층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시간 | 내용 |
|-------------|---|
| 14:00-14:40 | 1부. 개회식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개회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북구) |
| | 인사말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축사 임상병리사 소개 동영상 시청 기념촬영 및 질의응답 |
| | 2부. 토론회 토론자 소개 발 제언 :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 김기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
| | 좌 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지정토론 원홍 (의대교수 임상병리학과 교수) 오영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재훈 (서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국가안전보장위원회) 김문후 (원성서병원 간호사) 노은정(씨젠)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신대현 (부커노스 치과대학 건강생활부 기자) 오상훈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장) |
| 15:50-16:00 | 질의 응답 |
| 16:00 | 폐회 |

문의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02-3291-5435

| 공동 주최 | 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 | 주 관 | KAMT | 후 원 | 보건복지부

방문 현장검사(POCT)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7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지역 사회 방문 현장검사(POCT, Point of Care Testing: 임상현장즉시검사) 필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거동이 불편한 수요자들을 지원하고,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돌봄수요자에게 내가 살던 정든 마을에서 나이 들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임상병리사가 투입되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문 검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정 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사의 맞춤형 방문 검사는 돌봄 수요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보건 의료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 의료 시 방문 현장 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방문 현장검사의 효용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문 현장검사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임상병리사의 현장검사(POCT-Point of Care Testing)

POCT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주로 응급실·중환자실·일반병동에서 통상 이루어지는데 임상병리사가 검사의 질적 관리 및 장비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POCT는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의 유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약, 장비 등의 적절한 관리와 검사 신뢰도 및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책임자인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COVID-19, MERS, SARS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는 POCT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근래에 의료분야 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적정성과 의료비용 최소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POCT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어가는 추세다. POCT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비용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POCT 장비와 시약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검체를 사용하여 체외에서 질병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 등을 검증하는 제품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별도의 법, 제도적 기반인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 의해 운용되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품질책임자는 임상병리사에 의해 이뤄져 전문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다. 방문 검사에 있어서 임상검사의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 행위가 아닌 숙련된 검사인력

으로 사용자 교육, 검사 수행 절차 확립, 정도관리 수행, 검사법 검증, 측정 결과를 문서화하여 방문 현장검사(POCT)의 품질 관리를 함으로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상 결정 및 환자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별·계층별·지역 간의 건강 형평성이 확보되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안전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은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이 되고 있다. 보건 의료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보건 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 의료 기관 또는 보건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 의료인(保健醫療人·Health Care Provider)은 보건 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 의료 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 의료인(임상병리사)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의료 서비스의 질 고도화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등의 복합적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돌봄 통합 선도사업이 2019.06 ~ 2022.12에 지자체 16개에서 실시되었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이 2023.07 ~ 2025.12에 13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간 연계 체계 구축과 방문 의료 서비스 확충은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의 목적이며 방향이다.

돌봄 통합 지원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법에 우선한다. 관련 법령의 정비와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등을 통한 향후 2년간의 논의가 지역 돌봄의 원형을 형성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있어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의 다양화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의료, 건강 증진, 질병 관리,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노인 요양, 주거 등 지역 돌봄 패키지에서 각 분야 사업 중 기존 사업의 재구성 및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는 돌봄 서비스의 세밀한 요소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 통합 지원법이 2년 후인 2026년 3월에 발효되므로 앞으로의 시범 사업을 통해 보건 의료 직역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업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시 방문 현장 검사(POCT)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방문 현장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돌봄 통합 지원법의 후속 작업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방문 현장 검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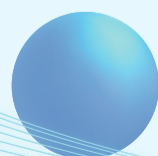
제182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난 9월 21일(토) 오후 1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0명 중 46명, 감사 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제18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관련 총괄 보고, 사무국 운영 관련 총괄 보고, 2024년 제28대 집행부 워크숍 개최 보고, 2024년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2026, 2027년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신청의 건, 보건복지부 출장 보고의 건, 포상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보고, 2024년 제183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 협회 내부 문서 유출 관련 조사를 위한 KT비즈메카 로그인 기록 열람을 위한 절차 안내 및 집행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요청, 2024년 중양회 특별감사(내부감사) 진행의 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장기미사용 계좌 해지, 임상검사과학회 예산 집행, 2024년 외부회계법인 감사 계약 체결, 2025년 종합학술대회 울산시회 1차 홍보지원금 지급, 2024년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 및 판정교육 대형 용역 선금 지급, 2024년 씨젠의료재단 협회비 단체 납부, 협회 신한 제휴카드 연회비 납부자 5,000원 환급,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을 위한 신한은행 대출상품 출시 △학술부 2024년 학술부 회의 일정 및 주요 사항, 2024년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학술부 실적 보고, 연구정책과제, 편집위원회 보고 △교육부 2024년 공공병원 의료기사직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 추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협회 입장표명 및 임평원 등 현안 논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장실습 개정(안) 관련 의기총 회의, 제1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현재 상황 보고,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홈페이지 및 평가시스템 구축 잔금 지급,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간담회, 제1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온라인 보수교육(교양, 공통영역) 시범 영상(인터뷰형식) 제작건,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감독관 파견,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상표 등록비 납부 △국제부 제62회 종합학술대회 관련, IFBLS 관련, 2024 교차트레이닝 관련 △공보부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병리협보, 홈페이지 배너 및 모바일 광고 변경의 건, 병리협보, 홈페이지 배너 및 모바일 광고 계약의 건, 2024년 시도회 공보이사와 정보통신이사 간담회 개최, 리플렛 및 홍보 책자 제작의 건, 매체 광고 진행의 건, 지면 병리협보 보고 건,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홍보 동영상 제작의 건,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촬영 용역 계약의 건, 보도자료 배포, 회원 고충처리 현황, 유튜브 및 SNS 관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의 건, 협회 제휴카드 발급자를 위한 복지를 위한 이벤트 실시의

건, AI 상담센터 구축의 건, 사무국 PC 및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시스템 구입의 건,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초록접수 페이지 오픈, 등록분과 운영의 건, KT 비즈메카 전자문서 백업작업의 건 △기획정책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고문 변호사 위촉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노무사 재위촉 및 회원 노무 관련 추진의 건, 4월 21일 스포츠 주간 마라톤 대회 참여, 대국민 홍보 관련 회의, 언론보도 홍보 방안 논의의 건, 정회원 혜택 강화의 건,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획, 보건소 POCT 설문지 통계 자료 발표, 평생교육원 운영 사업 △정무부 최연숙 의원 간담회, 이승로 성북구청장 간담회, 김윤(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성북구청 MOU 관련 실무자 회의, 김윤(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창립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성북구청 업무협약식, 구자필 보좌관(국회의원 서미화), 황연실 비서관(국회의원 이언주) 간담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간호법안 내용비교, 조국혁신당 간호법 발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뀌어 할 때 정책토론회(김미애 의원실 주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김미애 의원실 주최), 간호법인(대인) 국회본회의 원안가결 △섭외부 제1차 역사기록보존위원회 기초사업 회의, 진로 멘토링 회의, 제3차 역사기록보존위원회 기초사업 및 진로 멘토링 회의, 역사기록보존위원회 협보 특별기고, 역사기록보존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2024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취소의 건(10월) △중소병의원부 제1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2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소위원회 회의, 16개 시도회 대표위원 워크숍 진행,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3차 소위원회 회의, 공익신고 위원회 3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3차 회의, 28대 공단전문강사 워크숍 진행,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4차 소위원회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4차 회의, 공익신고 위원회 4차 회의 △보험부 2024년 제3차 보험부 회의, 제2차 채혈료 산정 TF 위원회 회의, 제3차 채혈료 산정 TF 및 심평원 간담회 회의, 정보통신부 및 공보부 자료 업로드 요청,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업무 협조 요청의 건이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제28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시도회 및 분과학회 회칙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해외학술대회 지원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 논의의 건,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문 상정의 건, 재건축 관련 표준품셈 대비 건축공정평가 진행의 건, 정기이사회 전자회의록 간소화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1호와 3호 안건이 조건부 의결, 그 외에는 모두 의결됐고 제182차 정기이사회는 정상적으로 폐회했다.

2024년 후원협력사 간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 홀에서 2024년 후원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2024 KAMT 인천)의 성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고 지멘스 헬시니어스(주)와 한국로슈진단(주)을 포함해 24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정수 섭외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내빈 및 후원협력사 소개를 시작으로 이광우 협회장의 환영사와 2024 KAMT 인천 채희영 대회장의 인사말, 2024 KAMT 인천 결과보고가 이어졌고, 지멘스 헬시니어스(주)와 한국로슈진단(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남상열 회장의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소개와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저녁만찬을 끝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제500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6명, 총원 45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4년 제501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4년 제182차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 2024년 후원협력사 간담회 개최 안내, 2024년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 협회 내부 문서 유출 관련 조사를 위한 KT비즈메카 로그인 기록 열람을 위한 절차 안내 및 집행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요청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4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을 위한 신한은행 대출상품 출시, 제휴카드 (신한 LOVE(다드림) 카드) 발급 현황 △학술부 학술회의 개최의 건, 논의사항 △교육부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감독관 파견,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상표 등록비 납부 △국제부 TAMT(대만) MOU, IFBLS, 교차트레이닝, 종합학술대회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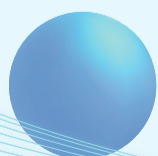
련 △공보부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병리협보 광고 현황, 유튜브 및 SNS 관리, 축사 작성,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촬영 용역 계약의 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의 건, AI 상담센터 구축의 건, 종합학술대회 등록분과 운영의 건 △기획정책부 평생교육원 운영 사업 △정무부 간호법안(대안) 국회본회의 원안가결 △섭외부 2024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축구대회 개최 안내 △중소병원부 임상병리사 적정임금 가이드 연구용역 협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보훈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업무 협조 요청의 건이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임상검사정보학회 회칙' 개정의 건, '조직세포검사학회 회칙' 개정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개정의 건, 재건축 관련 표준품셈 대비 건축공정평가 진행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모두 의결됐고 제500차 상임이사회는 정상적으로 폐회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 좌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박홍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소희·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 보건의료현장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이수진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협회별로 보건의료현장 실태에 대해 제언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 중 하나가 휴가를 제때에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점인데, 휴가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기선 학술부회장, IFBLS 이사 당선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 송기선 학술부회장이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이사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9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리치몬드에서 개최된 IFBLS 대의원 총회(General Assembly of Delegates) 및 수석 대표자 회의(Chief Delegates Meetings) 중 치러졌다.

IFBLS 이사회는 회장과 차기회장, 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아시아에서는 송기선 부회장이 유일하게 IFBLS 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IFBLS 이사를 역임한 이기중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에 이어 송기선 부회장이 이번 IFBLS 이사로 선임된 것은 우리 협회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드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기선 신임 이사는 2026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IFBLS 위원회 중 회원위원회(Membership Committee)와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맡는다.

송기선 부회장은 "IFBLS는 WHO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IFBLS 이사로서 의료현장에서의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IFBLS 대의원 총회 및 수석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태복 前 국제이사가 IFBLS Fellowship Awards에서 FIFBLS(Fellow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에 임명됐다. FIFBLS는 IFBLS 회원국 회원 중 임상병리 분야 관리자, 교육자, 연구자 중 큰 기여를 한 회원에게 수여된다. FIFBLS 임명장은 IFBLS 대의원 총회 및 수석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 대표단이 대리 수상해 9월 21일(토) 실시된 제182차 정기이사회에서 전달했다.



금번 선출된 송기선 학술부회장(오른쪽 뒤)과 IFBLS 임원진



이태복 前 국제이사(오른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서별 자료 게시판 운영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부서별 자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www.kamt.or.kr)-정보공유-부서별 자료'로 접속하면 관련 부서에서 게재하는 다양한 정보 및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보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PPT 템플릿,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및 시도회 로고, 1대1 문의게시판 안내,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개 자료 △보험부 요양급여 변경 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0년~2024년), 흥미로운 보험정보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로 신설 관련 질의·응답,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및 입원료 개선 설명회,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및 갑상선 기능검사 기준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타 부서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회 동정

- 9월 5일** 제500차 상임이사회
- 9월 7일** 제5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9월 7~8일** 특별감사
- 9월 11~16일** IFBLS 2024
- 9월 19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단체장 회의
기획정책부 회의
제5차 중소병원 발전위원회 회의
- 9월 20일** 제3차 세포병리사회&세포전문임상병리사회 연석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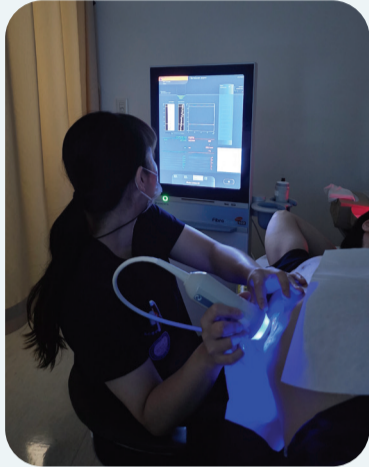
- 9월 21일** 제182차 정기이사회
2024년 제1회 임상병리사 정책포럼
- 9월 24일** 정보통신부-교육부 전산회의
- 9월 25일** 2024년 후원협력사 간담회
- 9월 26일** 회계법인 간담회
제휴카드 회의
- 9월 28일** 채혈료 산정 TF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도내 임상병리사 업무 소개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제주도 내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제주도회 김정순 회원은 간섬유화검사(Liver fibroscan) 업무를 하고 있다. 김정순 회원은 "간섬유화검사는 피검사 및 영상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증상은 발현되고 있는 정상인 중에서 잠재적인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구별하거나, 만성 간질환 환자의 의미 있는 간섬유화를 예측해 항바이러스 약물의 시작여부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라며 "또한 간경변증을 예측해 간세포암의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 필요한 감시장치를 가동하여 간경변 환자인 경우 문맥압 항진증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정맥류의 존재 여부 또는 내시경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을 잡는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간섬유화검사 원리는 순간탄성측정법(VCTE, Vibration Controlled Transient Elastography)이다. 진동자와 초음파변환기로 이루어진 탐촉자를 직접 간 부위의 갈비뼈 사이에 대고 진동의 탄력파를 주어 피부 표면으로부터 간까지 전달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초음파의 이동속도를 측정한다. 간섬유화검사 결과 중 간경직도(Liver stiffness)의 수치는 킬로파스칼(kPa)로 나타내고, 지방간은 CAP(Controlled Attenuation Parameter)의 수치를 데시벨/미터(dB/m)로 나타낸다.

간섬유화검사는 크게 간섬유화와 지방간 두 가지 검사로 크게 나뉜다. 간섬유화란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에 의해 간세포가 파괴되면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세포가 굳어지고 간에 다양한 크기의 재생결절들이 생기는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정상 간으로의 회복이 어려우며 심해질 경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면 또한 간암으로의 발생률도 높아진다.

지방간은 정상 간(지방 5%)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 고지혈증, 약물 등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간은 간세포가 괴사되는 염증이 생기는 지방성 간염으로 발전하고 각종 성인병을 동반한다.

김정순 회원은 "위에 말한 검사들로 객관적이고 빠르게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간 건강을 위해서는 과도한 알코올, 가공식품, 과당, 포화지방 등 섭취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물 섭취를 해야한다"며 "또한, 개인 위생 관리와 A, B형 간염 예방접종,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회 정자현 회원은 산부인과에서 난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난임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배아 생성관련 임상 업무와 기초과학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배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채취된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배아를 생성하고 배양 및 선별을 하며 미세정자주입술, 배아 동결 및 해동, 정자동결보존, 보조부화술 등 시험관아기와 연관된 임상적 기술을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난임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학, 생물학, 수의학, 발생공학, 축산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생명윤리법에서 정하는 배아생성관련학과를 이수해야 한다. 정자현 회원은 "그렇기 때문에 난임연구원은 임상병리사로서 간호사 또는 다른 의료가사와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주목받을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우울해져 가는 두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모습과 그 옆에 두 얼굴을 닮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정책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실시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와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회장 소선기)가 '정책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거행했다.

실무자 자격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회 △이석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신희(분당차병원) △김기성(국립암센터)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심미나(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지우현(삼성서울병원) △최병일(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박선영(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회와 조직세포검사학회는 협약식 후 앞으로 진행될 전문서적 출판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회는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회 병리표준화위원회 단독으로 '육안병리검사 실무표준서' 출판 후 육안병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임상병리사 PA 포함)들의 호평이 있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실무자의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병리표준화위원회를 재결성, 한층 더 전문화된 가치 '육안검사 실무 전문서적' 출판을 위해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와 협업하여 시너지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회는 이전 전문서적에서 소화기계와 호흡기계를 다뤘기 때문에 새롭게 집필하게 될 서적에는 비뇨기계, 부인과, 내분비계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실무내용을 양측에 분배해 빠르면 2025년 말 출판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2024년 검사실 감염안전관리 실무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주관하고 대한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회장 손재형)에서 주최한 검사실 2024년 검사실 감염안전관리 교육이 9월 7일(토) 오후 2시 대구시회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실무교육은 채혈실 감염안전관리교육(천주성삼병원 이현주)와 최신의료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관리(포스코부속의원 이종우)를 주제로 실시됐고 이후 문성식 회장이 간호법과 공익신고 등 협회 현안을 소개했다. 이후 기념품 지급과 경품행사가 끝난 후 교육은 마무리됐다.

대구시회는 "참가자들이 대구시회와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에서 함께 진행한 행사라 더 의미있고 완성도 높은 교육이었다고 모두들 극찬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제3차 정기이사회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7월 16일(화) 오후 6시 30분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 안건으로는 해피투게더 진행건, 학과장 간담회, 포상심의위원회 출범, 학술지원사업건 및 운영건, 학술부 협력사업, 정보통신부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건, 사업부 행사건이 진행됐다.



부산 임상병리학과장 및 중소병의원 실장 간담회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8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 서면 홍유단에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학과 학과장 간담회, 9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2024년 부산권역 중소병원 실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9월 10일(화) 오후 6시 30분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제2차 집행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7~8월 경과보고 및 2024년도 하반기 안건 토의가 진행됐다.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2024년도 제1차 산학연계 간담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가 9월 5일(목) 오후 6시 구미 낭만연구소 3층 연회장에서 병원 실(팀)장 및 실무담당, 지역분회장, 도내 4개 대학 학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2024년도 제1차 산학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 활동 및 도회 사업 안 홍보 △경북도회 정회



원 배가 운동 협조 및 발전 방안 모색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 및 신규병리사에 대한 자질요건 강화 △대학의 현 상황과 개선 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회는 산학연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무진 및 대학 교수진과 소통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무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교환했고, 1차 간담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을 통한 산학 교류의 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ADVANCED INSTRUMENTS

총일화학 Advanced Instruments, LLC 취급 제품

(주)총일화학
CHOONG IL CHEMICAL, INC

A.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 24
T. 02-2294-6411 H. www.choongil.com
E. webmaster@choongil.com



혐기 미호기 환경 시스템
Achieve unrivaled reliability of anaerobic, microaerophilic, and capnophilic environments with the Anoxomat® Anaerobic Jar System



정도관리물질
Verify instrument performance at clinically relevant osmolality levels with Protinol™ and Renol™ Controls



피펫 교정 시스템
멀티채널 리퀴드 핸들러검증 시스템
Simplify pipette performance and ALH management with the Artel PCS® Pipette Calibration System and MVS® Multichannel Verification System



삼투압측정기
Experience walk away osmolality testing with the OsmoPRO® MAX Automated Osmometer

Revolutionize workflow efficiency in your lab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4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교육과정 성료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가 주관하고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선경)가 주최한 2024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교육과정이 6월 22일(토)부터 8월 17일(토)까지 총40시간에 걸쳐 지원자 43명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진행됐다.

혈액전문임상병리사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수료자 43명은 9월 7일(토) 실시된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종합학술대회 분과학회 심포지엄 구연발표 실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소속 회원 2인이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분과학회 심포지엄에서 구연발표를 실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문세훈 회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Leukemia에 따른 CBC scattergram의 특징', 김선경 회원(세브란스병원)은 '사례별 문제해결과 정보공유에 대한 Q&A'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가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는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첫째 날인 8월 30일(금) 분과 심포지엄 2시간을 담당했다. 심포지엄에서는 △Carbapenem Non-Susceptibility Overcalling by BD Phoenix NMIC-500 Panel(서울성모병원 하성일) △신빙도 조사사업의 미생물 검사실 정도관리(강동성심병원 이형선)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NTM)의 개요(삼성서울병원 황유연) 강연이 진행됐다.

한편, 오는 11월 16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34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프로그램으로는 △CLSI M100 ED34 주요 변경 사항(비오메리 박신영) △Syndromic Testing for Respiratory Infection: Clinical Impacts and Laboratory Considerations(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열) △코로나 전, 후 호흡기 미생물과 항생제 감수성의 변화양상(단국대학교병원 김재수) △검체 판독 기준(서울대학교병원 홍성우) 미생물검사 24시간 운영(삼성서울병원 이준기) △Vancomycin variable Enterococcus faecium isolated from clinical samples(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하성일)가 준비됐다. 사전등록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보수교육에서 11월 11일(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2024년 화학전문임상병리사 하이브리드 교육 성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이승모)가 7월 6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5회에 걸친 40시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분석기기 원리부터 대사 질환까지 임상화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고, 인증 관련 정도관리 및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올해는 학회 최초로 서울, 부산, 광주 세 지역에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원격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적 제약 없이 다양한 지역의 회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상화학검사학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참가자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으며,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학회는 또한, "이번 교육은 임상병리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화학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10월 12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4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 수료식 실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전기)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신민식)가 3월 9일(토)부터 실시한 2024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이 8월 24일(토) 끝난 후 수료식이 실시됐다. 수료식에는 소전기 학회장과 신민식 위원장을 비롯해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박노원, 하화정, 박노진, 신명순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2024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에는 각 기관 실무 2년 이상의 병리와 임상병리사 18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고 교육은 병리학, 해부학, 조직학, 육안검사학을 기본으로 부인과 질환, 호흡기계, 비뇨기계, 체액세포 외에 갑상선, 유방 등의 세심흡인 세포 교육이 포함됐고 이론, 환등기 및 현미경 실습으로 전문교육과정이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21주간 토요일 8시간 정규 대면교육, 17주간 화요일 2시간 온라인 교육 및 특강 5회 이상을 수강했다. 이는 전문임상병리사 교육 중 최장 시간이다. 신민

식 위원장은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18명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9월 7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집행부 10인, ASCPi 합격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박노진(삼성서울병원), 신명순(원자력병원), 김연희(이원의료재단), 강주원(강릉아산병원), 이주영(경희의료원), 이정대(동수원병원), 김준엽(중앙호병원), 박용권(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이지현(에보스의원), 박윤지(강릉아산병원) 등 집행부 10인이 ASCPi CT, CTgyn에 전원 합격했다.

이들은 3월부터 ASCPi CTgyn, HTL, MB 자격증을 보유한 강주원 위원을 필두로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중 회의를 통해 ASCP에서 제공하는 Guideline에 맞게 범위를 나눠 문제 풀이와 해설을 2-3시간씩 진행했고 시험 직전인 6월에는 1박 2일 대면교육을 통해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시험을 준비했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위원들은 해부학 및 세포학의 기초부터 정도관리까지 폭넓은 세포병리학적 이론과 환등기 내용을 학습했고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민식 위원장은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임원들은 배움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며 전문적인 지식 함량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고자 ASCPi CT, CTgyn 시험을 도전하여 100% 합격을 이루어내었다. 이와 같은 역량 강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에서는 위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ASCPi 시험에 대해 알려 활성화 할 목표를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 세포전문임상병리사의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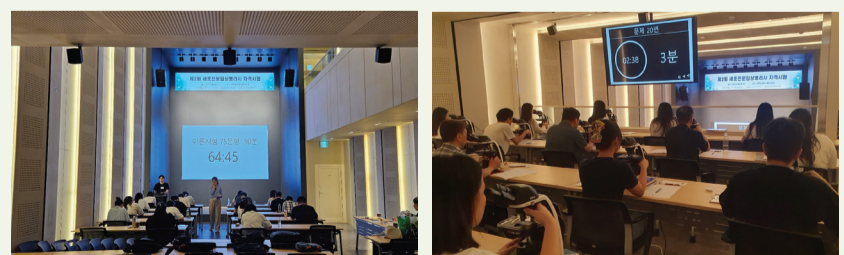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실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가 9월 7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1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은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회째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은 중앙회 신형식 재무이사와 김문정 국제부장의 관리 감독 하에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신민식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임원이 시험을 감독 및 운영했고 6시간동안 이론, 환등기, 현미경 시험 2가지로 구성된 시험이 진행됐다.

이번 자격시험으로 세포전문임상병리사 16명이 배출됐다. 조직세포검사학회는 "각 기관의 의욕있는 임상병리사들이 특화된 전문교육을 받았고, 세포전문임상병리사의

자격을 얻음으로써 각 병원과 세포학적 지식이 필요한 기관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고려대역에 인근에 위치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에 교육장을 두고 연초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회원동정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강수현 회원(김천대학교 13학번)

8월 28일(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팀 신규발령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
권덕하 정보통신이사, 우종운 기획정책이사

9월 1일(토) 충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승진

FUND RAISING 협회 발전 기금 모금

존경하는 7만 8천 회원 여러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협회와 신축 협회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 발전 기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48437-04-007038 (예금주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입금명 : 면허번호+성명, 기관일 경우는 기관명으로 기재



앞으로 병리협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Blood Gas Testing Solutions Powered by POC Informatics

www.siemens-healthineers.com/kr/point-of-care



RAPIDPoint® 500e Blood Gas System



- 카트리지 타입의 혈액가스 검사 장비
- 카트리지 교체만으로 장비의 모든 유지보수 대체 가능
- 100µL 전혈로 60초 이내 검사 결과 확인 가능

epoc® Blood Analysis System with epoc NXS Host



- 휴대용 검사 장비로 이동이 편리한 혈액가스 검사장비
- 하나의 카드로 Creatinine을 포함한 13가지 항목 검사
- Bluetooth, Wi-Fi를 통해 실시간 결과 전송

RAPIDLab® 1200 Blood Gas System



- 대용량 검사를 위한 혈액가스 검사장비
- 기능별 모듈화된 소모품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관리
- 100µL 전혈로 60초 이내 검사 결과 확인 가능

POCcelerator® Data Management System



- 3rd party 장비 연결이 가능한 개방형 Middleware Solution
- 원격으로 장비제어 가능
- 원내 온라인 교육 자동화 및 검사자 권한 관리 가능

Siemens Healthineers Ltd.
 지멘스 헬시니어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더에셋빌딩 10층
 우)06620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첨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